

## 찬란한 색의 향연

March, 2016 | 윤나리 기자

연꽃에 담은 검은 미학\_

### 〈장-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검은 연꽃〉

꽃을 매개체로 사진·조각·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오고가며 존재의 상실과 부재, 그리고 인간이 지니는 상처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프랑스 대표 조각가, 장-미셸 오토니엘. 한국 방문에서 다각적 의미를 가진 '연꽃'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의 개인전이 5년 만에 국내를 찾는다. 이번 전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꽃의 내면적인 의미와 상징을 연꽃을 통해 심화한 자리다. 시인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령보의 〈보이지 않는 찬란함〉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검은 연꽃(Black Lotus)'은 모순된 단어를 조합하여 양면적인 의미를 극대화한 이번 전시의 대표작. 어두운 색으로 채색된 유리구슬 조각은 정화, 깨달음, 깨끗함과 같은 연꽃이 가진 본래 가치의 의미를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의 5점의 회화를 최초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서양의 캔버스 위를 검은 석판화 잉크로 수놓은 5점의 회화는 마치 동양화를 연상시키며 연꽃의 변화를 미학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장-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검은 연꽃〉

2.2-3.27

국제갤러리 3관

02.735.8449



exposities 국제 갤러리  
(Photo by Anthony Cahill/Courtesy of Jean-Michel Othoniel/Studio)